

# 2023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 조달청, 사용자 지향·최신 지능정보기술 도입·전자조달 창구 일원화 등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를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나라장터는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행정부 전자정부 플랫폼으로 지난 2002년 전자정부 사업의 하나로 구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개통 이후 나라장터는 부분적인 개선·보수만 함에 따라 장애가 급속, 속도 저하 등 안정성 측면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사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지난해만 해도 문서 유통 5천만 건, 하루 최대 투찰 41만 건에 달해 장애 발생이 90건이나 되었다. 또한

현재 나라장터에 적용된 기반 기술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별도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어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조달기업이 여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비효율성도 지적되어 왔다.

조달청은 종전과 같은 부분적인 개선·보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초기 분석설계(ISMP)를 위한 예산 2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통

합을 위해 2014년부터 전자조달협의체를 운영하여 각 기관과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2018년 12월에 전자조달법을 개정하여 통합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사용자 지향 △최신 지능정보기술 도입 △전자조달 창구 일원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일정은 2023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초기 분석설계(ISMP)를 통해 업무 분석설계, 정보화 요소 발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기준 마련 등을 수행하고, 구축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축비는 총 1,320억 원(예타 결과 기준)이며, 연도별로 내년은 359억 원, 2022년은 474억 원,

2023년 487억 원으로 계획돼 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구축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통합은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기간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10일 8명으로 추진단(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의 핵심 인프라라고, 많은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사용하는 만큼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초기 설계분석을 하는 해인만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 사용자 요구 다변화,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의 역할 변화 등 시대의 요구에 맞는 명실상부한 차세대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소비자 반응 좋은 신제품 농산물 상품화 지원한다

### 농진청, 시장성 평가 '품종 개발 단계' 등 지원

올해부터는 신제품 농산물에 대한 시장성 평가가 이원화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과일과 채소 등 신제품 농산물에 대한 시장성 평가를 올해부터 '품종 개발 단계'와 '시장 진입 단계'로 이원화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신제품 개발 사업을 통해 연평균 80여 개의 원예·식량 작물 품종을 개발했다. 2016년부터는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 유통종사자(경매사, 중도매인, 대형마트 MD 등)를 대상으로 신제품 시장성 평가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품질 평가 위주로 진행되던 신제품 시장성 평가를 올해부터는 'R&D(연구개발)-보급-생산-유통-소비자'가 연계된 품종 개발과 보급 체계 마련을 위해 '품종 개발 단계의 시장성 평가'와 '시장 진입 단계의 마케팅 지원'으로 이원화한다.

품종 개발 단계의 시장성 평가는 기존처럼 실증 중인 품종을 대상으로 크기과 색, 외관, 당도, 경도 등을 평가한 이후 농가 보급과 시장 진입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자에게 품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품종 개발은 완료됐으나 시장 인지도가 낮은 품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는 품종 개발 단계에 있는 품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양파 '스위트그린', 배 '조이스킨', 복숭아 '벨로드립' 등 13품목 22품종이다.

새로 추진하는 시장 진입 단계의 마케팅 지원은 시장성 평가를 통해 상품성을 인정받은 품종, 즉 재배 면적과 일정 출하량이 확보된 품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통종사자가 주산지와 지역 소재 연

구소에 방문해 품질관리 방법과 상품규격 설정, 포장단위, 거래가격, 소비자 홍보 등 유통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상품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한다. 또한 '품종개발자-농가-유통종사자'가 출하 계획을 사전에 협의한다. 품질평가와 농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매년 품종 개발자와 신지 농가에 전달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9년 마늘 '홍산'과 사과 '루비에스'의 마케팅 지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

마늘 '홍산' 특유의 염록소 발현으로 끝부분이 연한 녹색을 띠는 단점을 기능성으로 부각해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일정 출하량 확보를 위해 '정미농협 마늘 공동 출하회(총남 단진)' 같은 공동출하 조직을 통해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미니사과 '루비에스'의 출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영천 루비에스 작목반(경북 영천)' 같은 공동출하 조직을 구성하고, 난좌식(충격방지 포장) 맞춤형 용기와 용도에 따른 포장 상자(2kg 선물용, 6kg 계통출하용)를 개발해 출하되는 상품의 가치를 높였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19년 마늘 '홍산'의 전국 재배면적은 2017년 대비 1,400% 증가했다. 사과 '루비에스'는 2019년 대형마트와 계약해 1kg당 8,000원의 높은 가격에 30톤 전량을 판매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은희 기술지원과장은 "체계적인 신제품 평가를 실시해 시장 반응이 반영된 품종을 육성하고, 재배 면적이 느는 품종의 경우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건협, 식품 위해우러미생물 시험법 개발 연구 과제 착수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식품 중 위해우러미생물 시험법 개발 연구' 과제 공모에서 2세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3일부터 본 사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본 사업은 잠재적으로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시험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 과제이다.

총 5개 유수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년간 약 6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한다.

건협은 제 2세부기관으로 '위해기생충연구'를 담당해 농·축·수산물에 매개체로 하는 '위해우러미생물'의 모니터링 및 시험법과 위생기술서의 개발을 주도한다.

이번 연구개발과제에서는 국내 유일이 가능한 '위해우러미생물'에 대한 탐색, 기호 및 조사를 실시해 연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1종 이상의 '위해우러미생물'을 대상으로 검출 시험법 확립 및 검증을 시행한다.

특히 건협은 시험법 확립이 완료된 3종 이상의 위해우러미생물을 대상으로 400건 이상의 농·축·수산물을 수거하여 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25일 지역본부 상환실에서 간부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산 대응계획 수립

### 전북농협, 비상대책회의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25일 지역본부 상환실에서 간부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전북지역의 추가 확산

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성일 본부장은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를 포함한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전북농협직원 중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및 신천지 교회 행사 참석(방문)자를 조사해 해당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불요불급한 출장·외출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김윤상 기자

또한, 3월8일까지 모든 회의, 행사, 교육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으며, 농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는 개최를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사업은 비대면거래 등을 통해 활성화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금융위, 마이페이먼트

###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 올해 업무계획 발표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0년 업무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핀테크·디지털 금융 혁신과제'의 세부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MyPayment)'를 도입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하지만 하는 방식을 말한다. 핀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지급결제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각종 결제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유렵연합(표)이 지난 2018년 1월 도입했다. /뉴시스

## 전북은행, 신종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

### 전직원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영업점 창구텔러별 손소독제 비치

###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차단 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3일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19에 대한 국가전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운영중인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긴급 안내 및 은행 전 영업점 및 본점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도내 3번째 확진자 동선 인근에 위치한 지점(서신동지점 외 7개 지점)에 2일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영업점 창구텔러별 개별 손소독제를 비치, 청경과 직원이 직접 손소독제를 창구방문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중 다중시설 방문 및 출장을 자제하고 있다.

영업점 출입문 손잡이, ATM 1일 3회 이상 소독하고, 직원의 손잡이 닿



전북은행은 영업점 창구텔러별 개별 손소독제를 비치해 청경과 직원이 직접 손소독제를 창구방문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있다.

기 힘든 점의 365자동화코너에 대해서도 주기적 살균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은 그 밖에 본점 출입통제 강화 및 감염방지를 위해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차단했으며, 외부 방문객은 1층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 로비에는 열감지기를 설치 및 감시인원을 상시 배치해 모든 출입자 비접촉 온도체크를 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으며, 각종 회의는 연기하고 필요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전북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2년 연속 '우수' 등급 선정

### 창업공간 무상 지원·솔루션 서비스 등 결실

전북도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평가에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A 등급을 획득했다.

전북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27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지난 2015년에 20개의 창업공간을 마련했다.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아이텔 선정, 사업자 등록,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화 모델링,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20여 개의 창업기업을 배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300여개 이상 창출했다.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각종 지표에서 성과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센터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이 41명으로 2018년 대비 40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은 150%, 수출도 해외 판로 연계 프로그램인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92만 5,000\$의 실적을 보임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220% 증가했다. 신원식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은

"조기 은퇴와 재취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부한 경험과 보유기술을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 인생2막의 새로운 도전을 희망하는 중장년 창업자들에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소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배이비부머 은퇴세대가 창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및 홍보와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

### 전문가 13명 공개모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투자 다변화 등을 고려해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채용에서 해외증권, 대체투자를 비롯하여 리스크 관리, 운용지원 등 기금운용 각 분야 전문가 총 1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대체투자 분야 전문인력을 집중 보강하고,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임운용역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실무 경력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직을 선발하며, 이번 채용의 최종 합격자는 오는 6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25일부터 3월 9일(오후 6시 마감)까지다. /김윤상 기자